

“제주 전력 신산업 IT인력 선제 육성 필요”

서귀포, 새봄 알리는 축제 ‘활짝’

17~18일 이중섭공원서 제12회 서귀포봄맞이축제
정소암 화전놀이 재현... 꽃나무 나눔행사도 마련

제주도-에너지기술연구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세미나 특화지역 지정 통해 민·관·학·연 협업체계 구축 주문

제주 분산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함께 실제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력과 기업 등을 유치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한라컨벤션센터 A홀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선점하기 위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공유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민·관·학·연의 지속적인 협업체계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전문가 목소리가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 협의회 민간부문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희집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는 ‘제주 에너지 전환을 통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법, 풍력촉진법 등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제주도는 반드시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제주도는 여름철 피크 전력이 매년 2.9%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소규모 전력중개거래·가상발전소(VPP)와 100%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약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RE100사업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 간헐성에 대비해 순간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유연성 자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또 “전력산업의 큰 변화가 제주도에서 실증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구적으로 파일럿으로 일어나게끔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주도는 전력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시키는 일자리

데이터센터와 플랫폼을 갖춰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제 산업이 생길 수 있도록 인력과 기업들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은 ‘분산에너지 특구가 제주 에너지 체계에서 미치는 영향’이라는 기조강연에서 “제주도는 전력, 태양광이 포화상태로 대용량저장장치나 전력시장가격, 계시별 요금제를 통해 전력 수요를 유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주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수요자원을 결합한 VPP, 전기차 충전기를 집합자원으로 하는 V2G, 태양광 발전력을 활용한 P2H, 잉여전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 P2G 등이 실증되거나 실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태윤기자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봄소식을 알리는 서귀포봄맞이 축제가 ‘올해의 문화도시’ 서귀포시에서 열두 번째 마당을 마련한다.

서귀포봄맞이축제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이석창·윤봉택)가 주최하고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센터장 이광준)가 주관하는 문화도시 서귀포와 함께하는 ‘제12회 서귀포봄맞이축제’가 17~18일 이중섭공원에서 펼쳐진다. 주제는 전통문화 축제의 의미를 품은 ‘복사꽃이 뚝 국물에 빠진 날’이다.

축제 첫째 날에는 ‘서귀포학’의 정립 의의와 필요성 및 그 방향을 모색하는 서귀포학 학술포럼이 소암기념관에서 ‘서귀포학, 닳을 올리자’ 주제로 열린다. 허남춘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기조발제자로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이 나선다. 지정토론자로 윤봉택 탐라문화유산보존회장, 강시영 제주환경문화연구원장, 오상학 제주대 교수, 박찬식 제주도민속자연사

박물관장이 참여한다.

또한 이날 별자리인 노인성을 테마로 고려와 조선시대 국가제사였던 남극노인성제를 재현 봉행한다. 서귀포봄맞이축제에서 처음으로 발굴,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여덟 번째 제를 맞는다.

둘째 날에는 목국과 돼지고기 반을 나눠 먹는 제주전통음식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400여 년간 이어져 다 조선 말엽 명맥이 끊긴 ‘정소암 화전놀이’가 진달래꽃 화전놀이로 재현된다.

이중섭 화가를 기리는 서귀포 은지화 그림그리기 대회를 비롯해 강문학 명창(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보존회장), JS라인댄스팀, 손지연 통기타 가수 등의 공연과 하모니카·바이올린·플루트 연주도 곁들여진다.

아울러 봄맞이축제의 상징으로 희귀 화목 및 과수모 등 26종·2300여 그루를 무료 분양하는 꽃나무 나눔 행사도 있다. 백금탁기자



아월해안도로를 걷는 즐거움 16일 제주시 아월읍 해안도로에서 관광객들이 청정 제주바다를 구경하며 트레킹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제주시 최근 3년 공무원 착한업소 이용실적 부서평가 반영에도 발길 줄었다

시 “거리두기로 방문 감소 읍면중심으로 새 업소 발굴”

제주시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해당 업소 이용 실적을 부서평가에 반영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공직자들의 방문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착한업소는 재료비 상승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 업소로 관련 조례에 근거해 도지사가 선정한다. 제주시에는 현재 외식업 132곳, 이·미용업 23곳, 숙박업 8곳, 세탁업 등 서비스업 5곳이 지정됐다. 전체 168곳 중에서 134곳이 동지역에 분포했다.

제주시는 고물가 상황에도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착한업소의 지속 운영을 돕기 위해 그동안 공직자들이 먼저 해당 업소를 방문하도록 이용 건수, 신규 신청 실적 등을 부

서별 경제활성화 시책 평가에 반영해왔다. 이에 따른 공무원 이용 실적을 보면 2020년 4220건, 2021년 3833건, 2022년 3690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신규 신청 업소는 2020년 22곳, 2021년 69곳, 2022년 63곳으로 집계됐다. 반면 자진 취소, 폐업 등 사유로 착한업소 명부를 뺀 곳은 2020년 8곳, 2021년 10곳, 2022년 18곳이었다.

이에 제주시는 사라지고 새로 태어나길 반복하고 있는 착한업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종전 종량제봉투 대신에 총 5000만원 규모의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인센티브로 부여하고 지원 시기도 6월에

서 4월로 앞당기는 등 제갑도를 높이기로 했다. 착한업소로 지정된 외식업 중에서 ‘백년착한맛집’으로 발굴된 곳에는 신규 메뉴 개발, 환경 개선 등 3000만 원을 투입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분청과 읍면동 평가 반영도 지속하되 이용 실적은 동지역, 신규 신청 건수는 읍면지역으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용 건수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단체 모임 등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지정 업소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으로 예외 사항을 청취하는 것과 함께 읍면을 중심으로 새로운 업소 발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오는 7월까지 임시 휴관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이 개선 사업으로 오는 20일부터 7월말까지 4개월간 임시 휴관한다.

서귀포시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 제공을 위해 9억5000만 원을 투입, 노후한 천체관측실과 천문대 내·외부 시설물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구경 16인치(400mm)에서 24

인치(600mm)로 주망원경을 교체해 기존보다 관측 성능을 높이고, 주관측실 계단에 경사로를 설치해 모든 관람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환경으로 바꿀 계획이다. 또한 안전을 위해 천체관측실 돔(지붕)을 전면 교체하고 내부(벽면·천정) 리모델링, 화장실 구조 변경, 외부 보도블럭 등을 보수할 예정이다.

시는 휴관 기간 초·중·고교, 청소년문화의집,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천문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아이돌보미 29명 신규 모집

서귀포시가 오는 4월 7일까지 신청·접수를 통해 신규로 아이돌보미 29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시는 부모의 취업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

는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 위해 아이돌보미를 신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나 보육시설 등·하원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안전관리 등을 담당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미늘·더덕, 씩씩음, 균형형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오래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혹병의 경감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AA

영양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박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박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호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용량 : 20kg

NAVER D.M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국내육성

전망 좋은 신종품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윈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향, 껍질 벗기기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강자!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완료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자호)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순에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한 향기가 있음.
하례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공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제라몬	함량 및 높이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절로 평가되는 품종.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능가 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공천, 흥진, 키라향, 산화향(흰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2-7년생)
하늘, 팔삭, 세미봉, 금굴,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몬, 국내산 행자묘목 판매(신규 2022-2023)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 사전예약 방문생산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트묘, 화분묘 분양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종품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종묘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리999-1번길1(수산리735)